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대표자	심 우 창
연구주제	국가유산 현황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연구목적	서구의 실효성 있는 국가유산 정책 발굴
연구방법	정기회의를 통한 연구활동 계획 수립 및 의견 청취 현장방문(비교시찰)을 통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내용 요약	국가유산에 대한 정책·제도, 주요 사업 및 연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최근 국가유산 정책 등의 흐름 파악
비고	

※ 붙임: 연구활동 세부결과보고서

2025년 11월 26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심 우 창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귀하

등록번호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20
등록일자	2025.11.26.
결재일자	2025.11.26.
공개구분	공 개

주무관	전문위원	대표의원	결 재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I 의원연구단체 현황

- 연구단체명: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 활동기간: 2025. 4. 1. ~ 2025. 12. 17.
- 구성인원: 총 22명 (서구의원 5명, 자문위원 2명, 연구위원 15명)
 - 서구의원: 5명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1	대표의원	심 우 창	서구의회 의원(복지도시위원회)	
2	위 원	김 미 연	서구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회)	
3	위 원	박 용 갑	서구의회 의원(환경경제위원회)	
4	위 원	홍 순 서	서구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회)	
5	위 원	김 원 진	서구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자문위원 및 연구위원: 17명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1	자문위원	양 선 우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수	
2	자문위원	황 순 형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회 회장	
3	연구위원	배 현 석		
4	연구위원	신 광 덕		
5	연구위원	장 미 희		
6	연구위원	조 운 희		
7	연구위원	최 규 술		
8	연구위원	최 순 철		
9	연구위원	최 은 순		
10	연구위원	최 재		
11	연구위원	임 용 선		
12	연구위원	이 환 설		
13	연구위원	정 성 미		
14	연구위원	문 신 영		
15	연구위원	노 인 철		
16	연구위원	문 용 규		
17	연구위원	정 연 호		

II

연구개요

□ 연구주제

-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 연구
- 서구 국가유산의 관리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 연구

□ 연구목적

- 국가유산 보수 및 관리방안 등 관련하여 조례 개선 방안 연구
- 국가유산의 역사적·문화적·환경적 의미를 재조명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방향 마련
- 국가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관광 발전과 연계 가능한 정책 제시

□ 연구내용

-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 및 벤치마킹
 - 수도권매립지공사 견학: 환경유산을 국가유산 정책에 통합하는 방안 논의
 - 수원화성·전쟁기념관·국립중앙박물관 방문: 국가유산 보존과 관광 활성화의 점점 탐색
 - 지방의회·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가유산 관리 주체로서의 지방의회 역할 논의
- 서구 국가유산 현황 조사 및 보존 방향
 - 서구 관내 국가유산(정서진, 아라뱃길, 매립지 유산 등) 현황 파악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기반형 국가유산 관리전략’ 연구
- 국가유산제도 및 법·정책 분석
 - 「국가유산기본법」 주요 내용과 정책 체계 검토
- 국가유산 관련 조례 제정 연구
 -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산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활동요약

연번	일정	내용
1	2025.4.16.(수) 16:00~19:30	1차 정기회의 및 간담회 개최
2	2025.6.15.(일) 11:00~18:00	경서동 고잔마을 민속대축제 행사 참석
3	2025.6.26.(목) 09:30~20:00	고양시 문화·역사자원 선진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4	2025.7.11.(금) 10:00~14:00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현황 점검 및 생태복원 방안 논의
5	2025.7.20.~7.22. (일~화) [2박3일]	백령도·대청도 비교 시찰을 통한 자연유산 보존사례 확인
6	2025.7.25.(금) 16:00~17:00	연구단체 대표와 연구용역 업체 간 회의 개최
7	2025.8.8.(금) 16:00~18:00	2차 정기회의 및 간담회 개최
8	2025.8.27.(수) 09:00~18:00	국립중앙박물관·전쟁기념관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9	2025.9.28.(일) 11:00~19:30	수원화성박물관 방문 및 수원화성문화제 참석
10	2025.11.12.(수) 16:00~19:30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회 및 간담회 개최
11	2025.12.17.(수) 16:00~19:30	연구단체 최종 성과 보고대회 개최

Ⅲ 세부 연구활동

□ 1차 정기회의 및 간담회 개최

○ 개요

- 일 시: 2025. 4. 16.(수) 16:00
- 장 소: 서구의회 상임위 회의장
- 참석인원: 총 10명(연구단체의원 4명, 연구의원 6명)

○ 주요내용

-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내용과 세부적인 활동 계획 공유
- 서구 국가유산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논의

□ 경서동 고잔마을 민속대축제 행사 참여

○ 개 요

- 일 시: 2025. 6. 15.(일) 11:00~18:00
- 장 소: 서구 경서초등학교
- 참석인원: 총 5명(연구단체의원 3명, 자문위원 2명)

○ 주요내용

- 지역 고유의 전통을 재현하는 지경돌 들기 기념행사, 집터다지기, 장구 난타, 풍물놀이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됨.
- 주민 참여형 체험프로그램으로 떡메치기, 멧돌체험, 말뚝박기, 다듬이 체험 등이 운영되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폭넓은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됨.
- 고잔마을의 주민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지역주도형 축제로 진행함.

○ 결과

- 행사 종료 후 고잔마을 추진위원회 및 관련 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전통무형문화의 보존 및 지역사회 차원의 계승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
- 연구회는 이를 통해 생활 속 전통문화의 보존활동이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와 직결됨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국가유산 정책 수립 시 ‘생활유산 기반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함.
- 세대 간 전승의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민 참여형 전통행사가 지역 정체성 회복과 문화적 연대감 형성에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함.
- 본 연구단체는 이번 참여를 계기로 서구 내 생활유산·무형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이를 향후 정책연구 과제에 반영할 계획임.
- 고잔마을의 사례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국가유산 보존 모델’로서, 지역 축제를 통한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공동체 복원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됨.

□ 고양시 문화·역사자원 현장방문 실시

○ 개 요

- 일 시: 2025. 6. 26.(목) 09:30~20:00
- 장 소: 경기도 고양시 (고양아람누리, 행주산성, 서오릉)
- 참석인원: 총 10명(연구단체의원 2명, 연구위원 6명, 직원 2명)

○ 주요내용

- 고양시의 대표 복합문화시설인 고양아람누리(아람극장·아람음악당·새라 새극장·노루목야외극장) 견학을 통해 복합공간의 구성, 운영 프로세스, 공연기획 및 시민문화 접근성 제고 방안을 조사함.
- 행주산성(사적 제56호) 방문을 통해 역사적 공간의 보존 현황과 관람 인프라(전기 관람차, 탐방로, 안내시스템 등) 개선 사례를 확인함.
- 서오릉(사적 제198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을 방문하여 문화재 해설 프로그램을 청취하고, 조선왕릉의 역사적 가치와 세계유산 관리체계에 대해 학습함.

○ 방문결과

- 고양아람누리 견학을 통해 복합문화시설의 공간 구성, 무대 연출 시스템, 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서구지역에 적합한 문화시설 모델과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행주산성 방문을 통해 역사유적지의 관광자원화와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확인하였으며, 전기 관람차 운영은 고령층·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배려한 관람 서비스 제공의 모범 사례로, 향후 서구 내 국가유산 또는 역사 문화자원 활용 시 적용 가능한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방향을 제시함.
-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이해하고, 서구 지역의 국가유산 지정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근거를 확보함. 아울러, 유적지 보존과 관광 활성화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방식(탐방로 제한, 관람시간 관리, 사전예약제 등) 필요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개 요

- 일 시: 2024. 7. 11.(금) 10:00~14:00
- 장 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일원
- 참석인원: 총 12명(연구단체의원 2명, 연구위원 7명, 직원 3명)

○ 주요내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홍보관 및 주요 처리시설 견학, 매립지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 설명 청취
- 폐기물 매립 과정, 침출수 처리시설, 메탄가스 자원화 설비 등 자원 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확인
- 매립지의 환경복원 및 생태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유산으로서의 가치와 국가유산 등록 가능성에 대한 논의 진행
- 주민참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생태체험 공간의 운영 실태를 파악 하고, 지역사회 참여형 환경거버넌스 모델 탐색
- 매립지의 공원화·문화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단계별 계획 공유

○ 방문결과

- 수도권매립지가 단순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넘어, 환경적 회복과 자원 순환의 상징적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함.
- 매립지 상부의 녹지 조성, 메탄가스 에너지화, 환경교육장 운영 등은 폐기물 종착지가 아닌 ‘환경유산 공간’ 으로의 전환 사례로 평가됨.
- 국가유산의 개념을 환경유산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단순한 생태관리 차원을 넘어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국가유산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서구 지역이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원순환 정책·생태복원 사업·환경교육 활동을 국가 유산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함.
- 전통적 유형유산 중심에서 벗어나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현대적 유산 개념’ 을 행정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 백령도·대청도 비교시찰 및 간담회 개최

○ 개 요

- 일 시: 2024. 7. 20.(일) ~ 7. 22.(화) [2박 3일]
- 장 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대청면 일원
- 참석인원: 총 12명(연구단체의원 4명, 연구위원 6명, 직원 2명)

○ 주요내용

- 인천 서해 최북단 도서지역의 지질유산·생태환경 실태 조사
- 백령도 두무진, 사곶해변, 천안함 위령탑 등 역사·군사·지질유산 탐방
- 대청도 서풍반이 트래킹코스, 진촌리 현무암 분포지 등 자연 유산 관찰
- 심청각·연꽃마을·설화 관광지를 방문하여 지역 설화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사례 확인
- 해병대할머니 묘 등 생활문화유산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생활 유산 현황 파악
-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정주여건·환경문제·인구감소 등 지역 현안 및 청년유입 정책 사례 청취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추진 경과 및 관련 관계자 의견 청취
- 해양쓰레기 유입 및 처리체계 한계 확인, 공공·주민 협력형 대응 필요

○ 방문결과

- 백령도·대청도는 지질학적·생태학적·역사·생활문화 가치가 복합된 국가유산으로 천연 해안지형과 현무암 지질구조, 군사유산, 주민생활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유산의 형태임
- 심청각은 지역 설화를 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킨 성공적인 사례로, 서구형 문화유산 활용 모델로 참고 가능함.
- 정주 인구 유지와 공동체 기반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청년층 주거지원·생활여건 개선 정책이 지역유산 보존의 전제가 됨을 인식함.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추진 중단 사례는 지역적 가치만으로는 국제 인증이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며, 외교적 협력·국제 네트워크 전략 병행이 필요함.

□ 연구용역 관련 간담회 개최

○ 개요

- 일 시: 2025. 7. 25.(금) 16:00~17:00
- 장 소: 의원실
- 참석인원: 총 4명(연구단체 대표 1명, 용역사 2명, 직원 1명)

○ 주요내용

- 서구 국가유산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방향 및 세부과업 협의
- 연구용역 수행 일정 및 역할분담 논의
- 연구단체의 요구사항 및 자문내용 공유
- 향후 중간보고회 및 결과보고회 일정 검토

○ 결과

- 연구용역 추진 일정과 세부과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중간보고회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함.

□ 2차 정기회의 및 간담회 개최

○ 개요

- 일 시: 2025. 8. 8.(금) 16:00~18:00
- 장 소: 서구의회 상임위 회의장
- 참석인원: 총 6명(연구단체의원 4명, 연구위원 2명)

○ 주요내용

- 의원 연구단체의 상반기 활동 보고
- 연구단체 하반기 활동 계획 일정 공유
- 서구 국가유산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세부 추진방향 논의

○ 결과

- 상반기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반기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용역 진행사항을 지속 점검하기로 함.

□ 국립중앙박물관 · 전쟁기념관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개 요

- 일 시: 2025. 8. 27.(수) 09:00~18:00
-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 참석인원: 총 13명(연구단체의원 2명, 연구위원 8명, 직원 3명)

○ 주요내용

- 국립중앙박물관의 선사·고대·중근세·기증관 등 주요 전시실 관람 및 전시·보존 체계 확인
- 국민 기증을 통한 문화유산 전시 과정과 시민 참여형 보존문화의 의미 확인
- 디지털 실감영상관, VR체험, 어린이박물관 등 첨단 전시 및 체험형 교육방식 현장 확인
- K컬처 열풍 속 박물관 굿즈샵 운영 현황 및 지역 캐릭터 활용 가능성 검토
- 전쟁기념관의 전시관람을 통해 전쟁사 교육 및 국제 교류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 파악
- 외국인 대상 다국어 안내, 오디오 가이드, UN참전국 기념공간 등 운영 실태 확인

○ 방문결과

- 국립중앙박물관의 디지털 전시·교육 콘텐츠를 통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국가유산 교육의 필요성 확인
- 지역 캐릭터 ‘서동이’를 활용한 문화상품(굿즈) 개발을 통한 국가유산 친근화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제시
- 시민의 자발적 기증과 참여를 통한 지역 문화유산 보존문화 확산 필요성 인식
- 전쟁기념관의 국제 교류형 전시·교육 방식을 통해 외국인 참여형 국가유산 공간의 모델 확인
- 호국정신 계승과 평화 가치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 역사 교육 콘텐츠 개발 필요성 제기
- 대규모 기관 사례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체험형 교육·시민 참여·굿즈개발·국제교류 등 개별 요소는 서구 여건에 맞게 도입 가능

□ 수원화성박물관 방문 및 수원화성문화제 참여

○ 개 요

- 일 시: 2025. 9. 28.(일) 11:00~19:30
- 장 소: 수원화성 및 화성행궁 일대
- 참석인원: 총13명(연구단체의원 3명, 연구위원 9명, 직원 1명)

○ 주요내용

-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보존·관리체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설명 청취
- 수원화성사업소 및 화성행궁 방문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관리 행정체계와 복원·정비 과정 현장조사 실시
-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체계, 시민참여형 교육·체험 프로그램, 축제 운영방식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사례 공유
- 수원화성 복원·정비사업의 추진 경과 및 예산 운영체계에 대한 실무적 설명 청취
- 스마트관광(AR·VR)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유산 홍보·체험 서비스 사례 확인을 통해, 첨단기술 기반의 관광산업과 국가유산 보존의 융합 가능성 모색

○ 방문결과

- 수원화성은 국가유산 보존과 지역관광을 성공적으로 연계한 대표적 모범사례로 평가됨.
- 복원된 성곽 및 행궁 일대를 중심으로 국가유산이 지역경제, 교육, 관광과 조화를 이루며, 보존과 활용의 균형모델을 보여줌.
- 향후 서구에서 추진할 역사문화 기반 도시재생정책 및 국가유산 관리체계의 실질적 참고모델로 적합함.
- 시민참여형 해설·교육프로그램 운영체계는 국가유산 향유 기반 조성에 매우 효과적임이 확인됨.
- 지역 해설사, 학생 자원봉사단, 주민 참여형 축제 등이 결합되어 단순 관람 중심의 유산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정체성과 시민 자긍심을 강화하는 사례로 평가됨.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간담회 개최

○ 개 요

- 일 시: 2025. 11. 12.(수) 16:00~19:30
- 장 소: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
- 참석인원: 총16명

(연구단체의원 4명, 연구위원 6명, 용역사 1명, 직원 5명)

○ 주요내용

- 「인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 연구」의 조사·분석결과, 정책제안, 향후 추진 전략 등에 대한 종합보고 청취
- 현장방문, 간담회, 축제참여 등 연구활동 전 과정을 종합 검토
- 국가유산의 보존·활용·교육·관광·환경유산 확대 등 정책영역별 발전방안 발표
- 서구형 국가유산 관리체계 구축, 국가유산 조례 제정, 관광·문화 정책 연계 추진방향 논의
- 연구성과를 종합·공유하는 연구단체 최종보고대회를 통해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후속 행정과 입법과제 추진 의지를 확인

○ 결과

- 국가유산의 개념을 확장하여, 생활유산·환경유산·참여유산 등 서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현대적 국가유산정책의 이행기반을 마련함.
- 연구단체는 그간의 연구성과를 서구정책에 반영하고,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정책지원체계 구축 추진하기로 함.
- 연구용역의 핵심목표는 통합관리, 전승체계 강화, 관광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이며, 이를 기반으로 서구가 국가유산 중심의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마련한 연구로 평가됨.

□ 최종 성과 보고대회 개최

○ 개 요

- 일 시: 2025. 12. 17.(수) 16:00~19:30
- 장 소: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
- 참석인원: 총14명
(연구단체의원 4명, 연구위원 8명, 직원 2명)

○ 주요내용

- 연구단체 활동 전반에 대한 연간 추진 경과 및 운영 성과 종합 정리
- 국가유산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향후 과제 정리
- 조례 발의 및 연구 성과를 포함한 입법·정책 연계 성과 확인
- 최종성과보고대회를 통해 연구단체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후속 행정·입법 과제 추진 방향 공유

○ 결과

-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2025년 연구단체 활동을 최종성과보고대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종료함
- 연구단체 운영 성과와 정책 연구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국가유산 정책의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도출함
- 국가유산 관련 조례 발의 및 연구성과를 토대로 향후 행정·입법 추진을 위한 기초 방향을 공유함
-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서구 여건에 맞는 국가유산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IV

연구활동비 · 용역비 사용내역

연구활동비(의정운영공통경비)

○ 예산액: 금4,000,000원(금사백만원)

○ 지출액: 금3,937,400원(금삼백구십삼만칠천사백원)

- 세부사용내역

연번	일자	사용내역	금액(원)	비고
1	2025.03.19.	현수막 제작	19,800	
2	2025.06.26.	고양시 문화·역사자원 현장 방문 버스 임차료	600,000	
3	2025.06.26.	고양시 문화·역사자원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240,000	
4	2025.07.25.	백령도·대청도 비교시찰에 따른 의원여비 지급	1,010,000	
5	2025.08.27.	국립중앙박물관 현장 방문 버스 임차료	500,000	
6	2025.09.28.	수원화성박물관·문화제 현장 방문 버스 임차료	375,000	
7	2025.09.28.	수원화성문화제 참여 관련 식사 및 간담회 개최	300,000	
8	2025.09.28.	수원화성문화제 간담회를 위한 다과비 지급	39,600	
9	2025.11.12.	최종용역보고회 간식비 지출	63,000	
10	2025.11.12.	최종용역보고회 간담회비 지출	460,000	
11	2025.11.20.	최종 성과 보고대회 홍보 포스터 제작	330,000	
합계			3,937,400	

용역비(의원정책개발비)

○ 예산액: 금15,000,000원(금일천오백만원)

○ 지출액: 금15,000,000원(금일천오백만원)

- 세부사용내역

연번	일자	사용내역	금액(원)	비고
1	2025.11.18.	인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15,000,000	
합계			15,000,000	

V

주요성과 및 총평

□ 서구형 국가유산 정책 방향 정립

- 국가유산의 개념을 유형·무형 중심에서 환경·생활유산 영역까지 확장할 필요성을 도출함.
- 수도권매립지, 고잔마을 민속대축제, 백령·대청도 등 현장사례를 통해 생활유산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함.

□ 주민참여형 유산관리 모델 확립

- 경서동 고잔마을 민속대축제, 수원화성 등의 사례조사를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유산보존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실효성 검증
- 세대 간 전승단절 해소, 공동체 결속 강화, 지역문화 자긍심 제고 등 생활 문화 기반 국가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확인함.

□ 국가유산과 지역관광의 융합 모델 제시

- 수원화성, 고양아람누리, 행주산성, 서오릉 방문을 통해 보존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문화공간 운영사례를 조사함.
- 시민참여형 해설사 제도, 축제·체험형 프로그램 등 관광 연계형 유산 활용정책의 우수모델을 확인함.

□ 환경유산 개념 도입 및 정책적 확장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현장방문을 통해 환경복원·자원순환 활동을 환경 유산의 범주로 포함해야 함을 제안함.
- 단순한 생태관리 차원을 넘어, 환경·교육·문화가 결합된 복합유산공간 조성 필요성을 인식함.

□ 디지털 기술 기반 국가유산 활용 가능성 확인

-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수원화성 등에서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 등 스마트 관광 및 디지털 전시기술 사례를 조사함.
- 첨단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국가유산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증함.

□ 국제협력 및 거버넌스 강화 필요성 도출

- 백령·대청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사례와 전쟁기념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유산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외교적 협력의 중요성 인식
- 중앙정부·지자체·전문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유산 관리 거버넌스 강화 방향을 제시함.

□ 연구용역 추진 및 정책반영 기반 마련

- 연구회는 1차 정기회의를 통해 연구용역 추진을 확정하고, 각종 현장조사 및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인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함.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구의 국가유산 지정기반 마련, 조례 개선, 정책 반영 등 실질적 행정 추진기초를 확보함.

□ 조례 제정 및 정책 반영

- 연구용역 및 일련의 현장조사·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서구형 국가유산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함.
- 조례제정을 통해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활용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병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됨.
- 국가유산 발굴·등록 추진, 생활유산 교육·홍보 강화, 관광자원 연계사업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임.

□ 서구의 국가유산 홍보대사 역할 강화

- 연구회 구성원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보수·정비 필요 사항과 주민 불편을 신속히 관련 부서·의원과 연계해 실질적 민원 해결로 이어지도록 지원함.
- 단순 연구를 넘어 정책-현장-주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서구 국가유산 관리의 신뢰성과 실행력을 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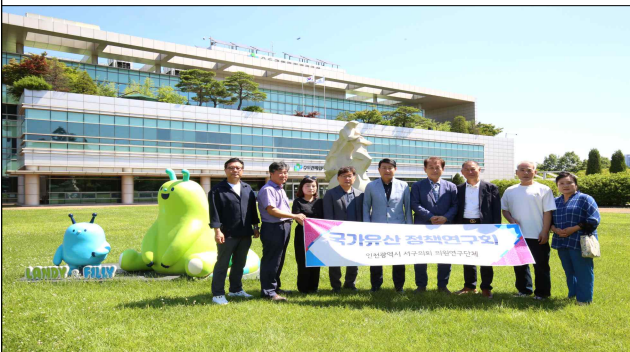
1차 정기회의 및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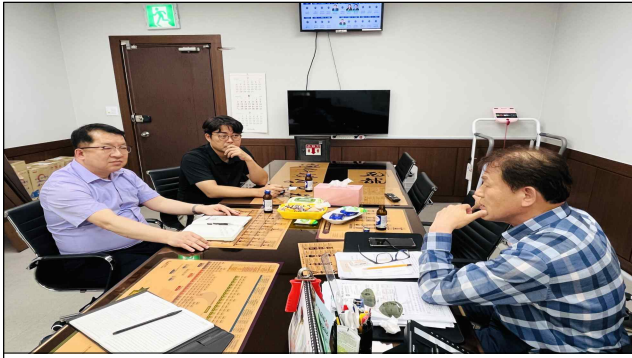
경서동 고잔마을 민속대축제 행사 참석



고양시 문화·역사자원 선진지 현장 방문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지 현장방문



연구 용역 관련 회의



2차 정기회의 및 간담회



백령도·대청도 비교 시찰



국립중앙박물관·전쟁기념관 현장방문



수원화성박물관 방문 및 수원화성문화제 참석



용역 최종결과 보고회



최종 성과 보고대회

□ 1차 정기회의 및 간담회



HOME > 지역소식 > 경인권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활동 본격화

문찬식 기자 / 기사작성 : 2025-04-17 17:12:04

정기회의-간담회 개최...서구 국가유산 가치-의미 재발견 연구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의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가 16일 제1차 정기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는 심우창 의원을 대표로 박용갑·김원진·김미연·홍순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서구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자 만든 의원 연구단체이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의원들은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내용과 세부적인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연구단체의 활동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서구 국가유산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콘텐츠를 활용한 국가유산의 기록-보존 방안,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심우창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계로 개편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서구지역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의원 연구단체 대표 심우창 의원은 "국가유산 관련 기관 및 현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서구 지역의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민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siminilbo.co.kr]

□ 경서동 고잔마을 민속대축제 행사 참석



HOME > 정치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경서 고잔마을 민속체험 대축제' 참석

박창우 기자 / © 승인 2025.06.16 13:11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가 경서 고잔마을 민속체험 축제에서 전통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 서구의회 포스트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는 지난 15일 인천 경서초등학교에서 개최된 '경서 고잔마을 민속체험 대축제'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통 무형문화를 체험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축제는 서구 고잔마을의 전통과 공동체 문화를 되살리고 도시화 속에서 잊혀가는 민속무형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이다.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는 이날 축제에서 전통놀이 체험, 지역민과의 대화, 국가유산 보존 관련 의견 청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마을 어르신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속유산의 생활 속 계승 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

정책연구회 대표 심우창 의원은 "경서 고잔마을 민속체험 대축제는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무형문화를 보존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뜻깊은 행사"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전통무형문화 보존 및 계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 우리 고유의 유산을 지켜나가는 데 힘을 갖"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는 지역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서구의 국가유산의 가치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박창우 기자 press11@daum.net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양시 문화·역사자원 선진지 현장 방문

매일일보

HOME > 전국 > 인천 경기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고양시 주요 국가유산 현장 방문

△ 이종민 기자 | ⓒ 승인 2025.06.27 21:29

▶ 아람누리·행주산성·서오름 견학 통해 국가유산 보존·활용 방향 모색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고양시 주요 국가유산 현장 방문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는 지난 26일, 고양시의 대표 문화시설 및 국가유산인 고양아람누리, 행주산성, 서오름을 방문해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인천 서구의 국가유산 정책 마련을 위한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연구회 소속 의원, 자문위원, 연구위원이 함께 참여해 시설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국가유산 현장을 둘러보았다.


첫 일정으로 방문한 고양아람누리는 공연장, 전시관, 도서관이 결합된 복합문화시설로, 공연장 무대와 객석은 물론 무대기계실, 조명·음향 설비 등 연출 및 운영을 담당하는 공간까지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행주산성은 전기 관람차를 활용해 이동이 불편한 방문객들도 주요 지점을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관람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었으며, 서오름에서는 문화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각 능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국가유산의 가치, 보존·관리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 결과는 향후 인천 서구의 문화유산 관련 정책 검토 및 사업 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는 서구의 국가유산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밀착형 정책과 주민 참여형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표의원 심우창 의원은 "국가유산은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의 근간이며, 이를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곧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민 기자

□ 수도권매립지 현장방문

중부일보

HOME > 로컬 프리미엄 > 인천서구의회뉴스

인천 서구의회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현장 방문

A 회기주 | ⓒ 승인 2025.07.11 16:28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해 송병희 사장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구의회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가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해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국가유산 관점에서 현장 연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수도권매립지가 단순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넘어, 자원순환·환경교육·도시재생 등 다차원적 공공가치를 지닌 공간이라는 점에 착안해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유산으로서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을 책임지는 핵심 기반시설로, 최근 국제 속린도 평가 최고등급 인증을 획득하고, ESG 경영 우수기관으로서 가축친화 정책과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등 사회적 책임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연구회는 매립지 운영 현황과 미래 개발 방향을 청취하고, 폐기물 에너지화, 녹지공간 조성,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환경 유산으로서 전환 가능한 요소를 직접 점검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매립지가 기피시설을 넘어 국가적 자원관리 거점이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심우창 연구회 대표의원은 "수도권매립지는 서구의 환경정책을 선도하고 대한민국 자원순환 모델을 제시하는 공간"이라며 "국가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유산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기주 기자

 회기주 rsafter@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차 정기회의 및 간담회

인간뉴스
HOME > 정치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제2차 정기회의 및 간담회 열어

박창우 기자 | 2025. 8. 8. 12:14:56

- 현장방문-비교시찰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 논의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정기회의 및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의회 포토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는 지난 8일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제2차 정기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올해 상반기 동안 진행된 현장방문 및 비교시찰 활동의 주요성과와 시사점을 종합 보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상반기 동안 ▲고양시의 대표 문화·역사 현장인 고양아람누리, 서울로, 행주산성 ▲접경지역이자 해양·관광자원이 풍부한 백령도·대청도 ▲환경 관리 및 자원순환과 관련된 수도권매립지 등을 방문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현안, 우수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고양시 문화·역사 자원의 활용과 보존 ▲서해 도서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관광 활성화 ▲수도권매립지 운영 현황과 환경정책 개선 필요성 등 구체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심우창 대표의원은 "이번 정기회의는 각 지역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는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중간보고회를 거쳐 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창우 기자 press11@daum.net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백령도·대청도 비교 시찰

중도일보

1991년 창간 | 011-241-1111 | joongdo.co.kr

인천 서구의회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백령·대청도 비교 시찰

자연유산 보존사례 현장 확인

주관할 기자

최후 기사입력 2025-07-28 14:31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국가유산정책연구회'는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백령도와 대청도를 방문해 자연유산 보존 현황을 확인했다.

백령도와 대청도는 수백 년 전 형성된 지층과 아주 오래된 생물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자연유산 지역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 이번 시찰은 이러한 지질학적·생태학적 가치를 직접 확인하고 이해를 넓히기 위한 현장 중심의 연구 활동으로 진행됐다.

백령·대청, 해안 일대에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폐기물이 밀려들어 환경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기본적인 관리가 원활하지 않아 자연유산 보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는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질공원센터 및 생태관광체험센터 건립, 해설서비스 확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해설서비스는 지역 주민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지역 자연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백령도·대청도가 국제적 자연유산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과 함께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행정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

심우창 대표의원은 "이번 현장 시찰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과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국가유산 정책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연구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특히 우리 서구에 위치한 세어도를 지역 고유의 자연유산으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구 국가유산정책연구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자연과 지역이 조화를 이루는 유산 정책 모델을 꾸준히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주관할 기자 orca2424002@

□ 국립중앙박물관 · 전쟁기념관 현장방문

국립중앙박물관 · 전쟁기념관 현장방문

HOME > 전국 > 인천

인천 서구의회, K-컬처 열풍 속 국가유산 활용 방안 연구

▲ 이병훈 기자 | ⓒ 승인 2025.08.29 09:59

- 의원연구단체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현장 탐방
- 국립중앙박물관·전쟁기념관 방문, 연계 모색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국가유산정책연구회'가 지난 27일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구의회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국가유산정책연구회'는 지난 8월 27일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서구 지역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회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선사·고대관, 중근세관, 기증관 등 전시실을 둘러보며 시대별 유물 전시와 보존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기증관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문화재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시민 참여와 나눔을 통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의 몰입형 전시와 체험형 방식의 '디지털 실감 영상관'은 대형 파노라마와 VR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이 생생하게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린이박물관은 놀이와 교육을 결합해 미래 세대가 자연스럽게 국가유산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연구회는 "서구에서도 어린 세대를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K-컬처 열풍으로 박물관 내 굿즈샵이 활성화되고 내·외국인 방문객이 증가하는 점에 주목하며, "서구를 대표하는 캐릭터 '서동이'를 활용해 지역 역사와 문화를 담은 굿즈를 개발한다면, 내·외국인 모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어 방문한 전쟁기념관에서는 한국전쟁은 물론 세계 전쟁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인했다. 특히 영·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안내와 오디오 가이드, U·N 참전국 기념 공간 등은 외국인 방문객의 이해를 돕고 국제 교류의 장으로 가능하고 있었다.

심우창 대표의원은 "국가유산은 지역의 정체성과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미래 세대, 나아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현장에서 확인한 운영 사례와 K-컬처 열풍에 따른 문화산업적 요소를 서구의 국가유산 정책에도 반영하여, 내·외국인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기자 ittec@naver.com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원화성박물관 방문 및 수원화성문화제 참석

시민일보

HOME > 지역소식 > 경인권

인천 서구의회, '국가유산' 활용 방안 모색

문찬식 기자 / 기사작성 - 2025-09-30 17:35:58

의원 연구단체 '서구 국가유산정책연구회', 수원화성 방문 문화관광 정책과 연계 가능성 연구



의원 연구단체 '서구 국가유산정책연구회' 수원화성박물관과 수원화성문화제 방문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서구의회)

[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서구 국가유산정책연구회'가 28일 서구 문화예술정책연구회와 수원화성박물관과 수원화성문화제를 방문, 문화관광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했다.

연구회 위원들은 수원화성박물관을 관람하며 정조대왕의 개혁 정신과 수원화성의 건축적·역사적 가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배경을 살펴보고 박물관 내 디지털 전시와 복원 자료를 통해 국가 유산이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되고 교육 및 관광 자원으로 새롭게 활용되는 과정을 체험했다.

이어 열린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 행사는 화려한 전통의상과 장엄한 행렬, 다채로운 공연이 어우러져 당시의 장면을 생생히 재현, 국가 유산이 단순한 '과거의 흔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축제와 결합해 살아 숨 쉬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문화적 장기로 발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수원화성문화제에서는 전통 예술공연, 청소년과 지역 예술단체가 함께하는 무대, 그리고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청소년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국가 유산이 주민 중심의 문화콘텐츠로 확장되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원들은 이번 문화제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주민이 주체가 되고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다.

심우창 대표 의원은 "수원은 국가 유산을 현대적 문화예술 콘텐츠와 대규모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며 "서구 역시 보유하고 있는 국가 유산과 역사 자원을 주민 참여와 연계해 축제와 관광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 국가유산정책연구회 관계자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서구 지역의 문화재와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한 주민 주도형 축제 개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적극 연구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민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siminilbo.co.kr]

□ 용역 최종결과 보고회 및 간담회 개최

GUKJENEWS
HOME > 전국 > 인천

서구 국가유산 보존·활용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 개최

A 문연수 기자 | © 승인 2025.11.13 15:39

연구용역 결과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 정책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심우창)」(사진=서구의회 제공)

(인천=국제뉴스) 문연수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심우창)」는 11월 12일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연구위원, 용역수행기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서구 도시 환경 분석 ▲국가유산 실태조사 ▲서구 국가유산 현황 파악 ▲보존·활용 방안 검토 등을 통해 지역 내 국가유산 관련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했다.

김미연 의원은 “서구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가치 있는 문화·예술 자료가 다수 존재한다”며, “이번 기회에 이러한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조사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에서 국가-시-구 단위의 지정·보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이러한 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서구의 문화·예술 자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존되고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우창 대표의원은 “도시화가 지속되면서 과거에 사용되던 생활용품 등 생활사 관련 자료의 보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자원을 교육 콘텐츠나 디지털 자료로 활용해 주민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구의 분구로 ‘서해구’가 신설될 예정인 만큼, 정서진이 지닌 지리적·상징적 가치를 지역의 관광·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정서진-세어도 연계, 갯벌 자원 활용, 수도권매립지 일원의 국가유산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광·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연계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우창 의원은 끝으로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 정책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며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활동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용역은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 정리 과정을 거쳐 종결될 예정이다.

문연수 기자 mun7185@naver.com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종성과 보고대회

경인종합일보
HOME > 인천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2025년 최종성과보고대회 개최

A 박형남 기자 | © 승인 2025.12.18 22:11



사진/서구의회 제공

[인천= 박형남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심우창)는 지난 17일, 의원간담회장에서 「2025년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최종성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성과보고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연구 과정에서 축적된 정책 성과와 연구 결과를 다시 한 번 공유하고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는 올해 「인천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와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국가유산과 관광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성과를 도출했다.

아울러 서구 지역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병행 추진하며, 국가유산을 지역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해 왔다.

특히 연구회는 국가유산의 단순 보존을 넘어 관광·교육·지역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주목해, 서구의 여건에 맞는 정책 모델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보고회에서는 연구회 운영 경과와 주요 활동 내용, 조례 발의 및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중심으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 정리했으며,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심우창 대표의원은 “올 한 해 동안 국가유산 정책을 보다 구조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조례와 연구로 연결해 온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최종성과보고회는 연구단체 활동을 정리하고 그간의 성과를 되새기는 마무리의 자리였다”고 밝혔다.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는 이번 최종성과보고회를 끝으로 2025년 연구단체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박형남 기자 phokr@hanmail.net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